

파리와 베이징컬렉션에 나타난 차이나이즈 포복스타일 디자인 비교 연구

유목금 · 유영선[†]

경희대학교 의상학과 석사 · 경희대학교 의상학과 교수[†]

A comparative study of Chinese robe styles in Paris and Beijing collections

Mu Jin Liu · Youngsun Yoo[†]

Master,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Kyung Hee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Kyung Hee University[†]

(2020. 12. 4 접수; 2021. 2. 9 수정; 2021. 2. 15 채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and analyze the Chinese robe styles of the Paris and Beijing collections from 2014 to 2018 to find the differences between the expressions of European and Chinese designers on the Chinese robe style. The methods of research were a literature review to derive the design analysis items of Chinese robe styles, and a case analysi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both the Paris and Beijing collections showed an increase in use of Chinese robe styles year by year. Second, in the Paris collection, designs using qipao styles from the Republic of China era appeared the most among the robe styles of various Chinese dynasties. Qipao style appeared the most in the Beijing collection too, but the robe styles from the era of Pre-Qin, Qin, Han, Song, Ming, and Qing dynasties appeared more often than in the Paris collection. Third, in the comparison of silhouette type, there were mostly X-type silhouettes in the Paris collection and A-type silhouettes in the Beijing collection. As for neckline and sleeve type, both collections showed stand collars and tube sleeves. Fourth, in color comparison, there were mostly red-based colors in the Paris collection and blue-based colors in the Beijing collection. Fifth, in the comparison of pattern type, there were the mostly plant motif patterns in the Paris collection, and complex patterns in the Beijing collection. In conclusion, it was confirmed that the Chinese robe styles of the Paris Collection expressed a design fused with various styles due to the tendency to respect the diversity of various cultures and of the Beijing Collection emphasized the beauty and ethnicity of traditional Chinese clothing.

Key Words: Chinese robe style(차이나이즈 포복스타일), Paris collection(파리컬렉션), Beijing collection(베이징 컬렉션)

[†]Corresponding author; Youngsun Yoo

Tel. +82-2-961-0254

E-mail : ysyoo@khu.ac.kr

I. 서론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서양 패션에서 동양의 이상 모티프가 서양 패션에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졌고 중국 전통 복식(袍服)에서 영감을 얻은 디자이너들이 서양 패션에 자주 등장하였다. 2008년 중국 베이징 올림픽과 2014년 APEC 정상회담이 중국에서 개최되어 중국에 관심이 쏠리면서 세계적으로 중국풍 패션이 재조명되었다.

2011년 Louis Vuitton 컬렉션에서 치파오와 중국의 전통 문양, 전통 색상, 중국 현대 일러스트레이션을 결합한 패션이 소개되었고, 2017년과 2018년 GUCCI 컬렉션에서는 명대 여성 포복스타일 수전의, 청대 여성 포복스타일 기장과 중국의 전통 문양을 결합한 패션디자인 등이 등장하였다. 중국의 컬렉션에서도 중국풍 디자인을 현대패션에 접목한 시도가 잦아지면서 유럽의 패션디자이너들이 다루는 중국풍의 디자인과의 차별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본 연구에서는 파리컬렉션과 베이징컬렉션에 나타난 포복(袍服)스타일의 디자인 표현방법 차이를 확인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중국풍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성향숙(2001)은 1990년대 패션에 나타난 중국 문양을 중심으로 현대 패션에 나타난 오리엔탈리즘을 연구하였고, 김지영과 김선아(2009)는 중국풍 에스닉 패션의 색채 특성을 연구하였으며, 장이와 김숙진(2011)은 중국 소수민족의 의상을 재해석한 패션 디자인을 연구하였다. 김연(2012)은 현대 남성 재킷에 나타난 중국풍 디자인 특성을 연구했다. 서아정 외(2013)는 중화민국시대에 나타난 치파오 문양에 관한 연구를 하였으며, 주가이와 하승연(2014)은 파리컬렉션 나타난 중국풍의 특성을 연구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오리엔탈리즘 또는 전반적인 중국풍 패션과 관련된 것이며, 포복스타일을 연구한 경우도 중화민국시대의 치파오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 많았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선진시대에서부터, 진한시대, 송대, 명대. 청대를 거쳐 중화민국시대에 이르기까지 중국 전통 포복(袍服)의 시대별 형태

적 특징들이 파리와 베이징컬렉션의 중국풍 디자인에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를 비교 분석하여, 유럽과 중국에서 다루고 있는 차이나이즈 포복스타일의 표현방법의 차별적 특징을 확인하고자하며, 향후 중국풍 패션디자인의 디자인 발상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데 있다.

연구의 방법은 차이나이즈 포복 스타일의 디자인 분석항목 마련을 위한 이론 연구와 2014년 S/S부터 2018년 F/W까지 5년간 차이나이즈 포복스타일 작품 사례분석으로 이루어졌다.

II. 이론적 고찰

1. 차이나이즈 포복스타일

중국풍(chinoiserie)은 중국적 요소에 영감을 얻어 형태로 표현한 것으로 중국 문화와 동방 문화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으며, 중국만의 독특한 매력과 성격을 가진 예술 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풍의 표현형식이 예술화가 되면서 중용적, 함축적 생활 형태가 되었으며 서양의 재현적 예술과는 다른 형태로 나타났다.

J. Dawn(1993)은 중국풍(chinoiserie)을 동양에서 영감을 받은 모든 스타일로 정의하였으며, 신상철(2011)은 중국풍을 동방 무역을 통해 유입된 동양 유물, 동양에 대한 이국적 취향 그리고 중국풍의 장식 예술품을 지칭했던 용어로 정의하였다. 김연(2012)의 연구에서는 중국풍을 중국 스타일(Chinese style)이라는 넓은 의미로 이해하고 중국 문화에 바탕으로 두고 중국적 요소를 표현 방식으로 하는 독특한 매력과 성격을 가진 예술 형식이라고 하였다. 교단(2012)의 연구에서는 ‘중국풍’에 대한 어원을 ‘중국’과 중국에서 기인한 양식, 풍격, 스타일 등의 의미를 갖고 있는 ‘풍(風)’이 합성되어 생성된 용어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중국풍을 의미하는 개념을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중국 포복스타일에 영감을 얻어 현대 패션디자인에 등장한 중국풍을 ‘차이나이즈 포복스타일’로 정의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림 1〉
인물용봉도(人物龙凤图). 전국시대
(출처: <http://www.xiwangchina.com>)



〈그림 2〉
비단면면포(绸缎面棉袍). 전국 시대
(출처: <http://www.kaogu.cn>)



〈그림 3〉
곡극포신기수면연면포(信期秀锦缘棉袍). 서한시대
(출처: <http://www.hnkg.com>)



〈그림 4〉
인화부채사면포(印花敷彩纱锦袍). 서한시대
(출처: <http://www.hnkg.com>)

2. 중국의 시대별 포복(袍服) 변화와 디자인 특징

포복은 중국에서 일찍이 착용한 의복 중 하나로 선진시대로부터 중화민국 시대에 이르면서 처음 속옷 형식이었다가 일상복이나 예복의 모습으로 전환되었다(赵波, 2013). 수천 년의 역사와 함께 계승되어 그 고유의 특색을 유지하면서도 여러 민족의 의복기호와 특징을 흡수하여 화려하고 풍부한 스타일로 발전되었다. 중국에서 출토된 포복이나 소장된 포복 디자인의 변화는 주로 선진시대, 진한시대, 송대, 명대, 청대, 중화 민국시대를 거쳐 형성된 것이다(赵波, 崔荣荣, 2013).

선진시대를 대표하는 여성 포복은 바로 ‘곡거심’의와 ‘면포’이다. 선진시대 포복은 기능에 따라 일상복과 속옷으로 나뉘는데 남, 여 모두 착용할 수 있었다. 귀족의 일상적인 포복의 경우

몸에 붙고 길게 만들어졌는데 목깃은 넓고 옷에는 수를 놓았으며, 끝자락을 넓게 하고 두꺼운 재질의 직면을 사용하여 의복의 모양을 잡아주면서 걸을 때 불편함을 감소하도록 하였다. 소매는 소소식(좁은 소매), 관소식(넓은 소매), 대소식(큰 소매)으로 나타났다. 고령(높은 목깃)과 우임(오른 쇄), 대금(단추를 한쪽으로 채우게 됨)으로 넓고 긴 모양을 가지며, 상하가 분리되도록 재단되었다(赵波, 2013). 또한 허리에 띠를 둘러 트이지 않도록 디자인되었고 아랫단은 곧게 재단되는 특징을 가진다. 선진시대의 《尚书·益稷》에 따르면 의복은 청색, 적색, 황색, 백색, 흑색을 표준으로 하고 포복의 경우 흑색, 적색, 황색, 녹색, 백색을 기본으로 했다(吴爱琴, 2015). 〈그림 1〉은 전국시대 묘에서 출토된 백화 인물용봉도의 곡거식 소매의 포복을 입은 여인의 모습이다. 〈그림 2〉는 후베이 강릉 마산1호 초묘에서 출토



〈그림 5〉 연갈색나양화변광소포 (淺褐色羅鑲花邊廣袖). 송대 (宋代) (출처: <http://www.museum.fjsen.com>)



〈그림 6〉 갈황색나양화변재소포 (淺黃色羅鑲花邊窄). 송대 (宋代) (출처: <http://www.museum.fjsen.com>)



〈그림 7〉 요대보월도 (瑤台步月圖). 송대 (宋代) (출처: <http://www.dpm.org.cn>)



〈그림 8〉 수전의. 명대 (明代) (출처: 중국복식사, p.107.)



〈그림 9〉 여성 통수 기장. 청대 (清代) (출처: 중국 전통 복식 문화, p.79.)



〈그림 10〉 여성 전수 기장. 청대 (清代) (출처: 중국 전통복식문화, p.79.)



〈그림 11〉 여성 마제수 기장. 청대 (清代) (출처: 중국 전통 복식 문화, p.79.)



〈그림 12〉 치파오. 1920년대 (출처: 중국문화복식, p.102.)

된 봉황과 꽃들을 수놓은 천황 비단면면포이다.

진한시대(秦漢时期)에는 한대에 이르러 포복은 속옷으로부터 외출복으로 바뀌기 시작했고, 장식도 생겨나게 되었다(華梅, 2018). 이 시기의 특징은 교령, 우입, 굴곡 또는 직고의 모양으로 소매는 좁은 모양을 나타내고 있었고, 사면과 같은 채색으로 된 수가 놓였으며, 끝자락은 둥글게 되어 있다(趙波, 2013). 〈그림 3〉은 마왕추 1호 한묘에서 출토된 포복스타일로 곡곡포 신기수면면 면포이다. 서한 초기 포복스타일은 곡곡포 위주로 직고포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동한시기에 이르러 직고포가 주를 이루었는데, 관직이나 백성에 따라 나뉘었다. 관직에 따른 차이는 없었지만 출토된 실물로부터 신분이 고귀한 사람일수록 그 길이가 더 길었음을 볼 수 있다. 선진시대 포복스타일은 간단한 식물문양 자수가 놓이기 시작했다. 〈그림 4〉는 직고포 인화 부채사 면포이다.

포복스타일의 변화는 송대에 이르러 다원화의 양상을 보이기 시작하였는데, 단일한 모양으로부터 여러 모양으로 확장되었다. 관복, 일상복, 남성복, 여성복 등 여러 가지의 포복스타일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송대를 대표하는 여성 포복스타일은 '배자' 이다. 일반적으로 직령 맞설 형태를 띤 배자는 앞섶을 여미지 않도록 마름질하고 매듭단추도 달지 않았으며, 소매는 폭이 좁은 것부터 넓은 것까지 다양한 종류가 있었다. 〈그림 5〉는 푸저우 남송 황송묘에서 출토된 연갈색의 넓은 소매의 나양화변 광소포이다. 길이 또한 각양각색이어서 복사뼈까지 내려오도록 긴 것이 있는가 하면 종아리나 무릎 또는 무릎 위까지 오는 짧은 것도 있었다. 또 다른 특징은 허리나 겨드랑이에서부터 아랫단까지 양옆의 트임이 있었다. 간혹 옆트임이 없는 배자도 발견되었다(福州福建博物館, 1982). 〈그림 6〉은 소매폭도 좁고 길이도 짧은 갈황색 나양화변 재소포이다. 〈그림 7〉은 배자를 착용한 송대 여성의 그림이다.

목에 딱 맞는 네크라인, 대금, 넓은 폭에 곧은 허리선을 가지며, 상하가 연결되도록 재단되었다. 또한 허리에 띠를 두르고 양측으로 트여져 있다(赵波, 2015). 송대에는 색상에 따라 녹포(绿袍, 녹색), 자포(赭袍, 황토색), 적상포(赤霜袍, 분홍색), 적포(柘袍, 적황색), 조포(皂袍, 흑색), 자포(紫袍, 자주색), 백포(白袍, 백색)로 나누어 군주는 황색, 관료는 흑색, 자색, 적색의 포복을 착용했다. 백성들은 적백색과 백색을 착용했다(赵波, 崔荣荣, 2013).

당대와 송대의 복식을 계승한 명대의 여성복은 고전미의 정수만을 모았다고 할 정도로 우아하고 여성스러운 스타일로 변모하였다(江苏省扬州市双博馆, 1999). 명대의 포복은 넓은 라운드 네크라인, 대금, 넓은 폭으로 상하가 연결 되도록 재단되었고 허리에 띠를 띠고 양측으로 트여져 있다. 끝자락은 둥글게 되어 있는 특징을 가진다(马

唯, 吕钦, 2018). 대표하는 여성 포복스타일은 ‘수전의’이다. <그림 8>과 같이 수전의는 색마다 다른 형상의 포단을 이어 엮은 것으로 목깃을 세우거나 대금 형식을 가지고 있다(华梅, 2018). 명대에도 색채로 이름이 지어진 자라포(紫罗袍), 비포(绯袍), 녹포(绿袍), 남포(蓝袍)가 있었고 특히 남포는 명대에 대표적 포복으로 출현하였다. 명대의 귀족들은 넓은 소매의 홍색 포복을 착용했으며 일반 부녀자들은 연분홍색과 자녹색 또는 채도가 낮은 색상의 포복을 착용할 수 있었다(华梅, 2018).

청대의 포복은 ‘기장, 기포’라고 불리는 만주민족 고유의 복장이었다. 기장은 청나라를 세운 만주족(满洲族)의 기인(旗人)들이 입던 포복 스타일(袍服)에서 유래하였다(江苏省扬州市双博馆, 1999). 기장은 중국의 대표적인 전통 포복으로 청대(清代)에 형성되었다. <그림 9>는

<표 1> 중국 전통 여성 포복의 시대별 디자인 특징

시대	선진시대	진한시대	송대	명대	청대	중화민국
기간	770 B.C.E.-221 B.C.E.	221 B.C.E.-220 A.D.	960-1279	1368-1644	1636-1911	1912-1949
복식명칭	곡거십의 면포	곡령포 직령포	배자	수전의	기장 기포	치파오
사례						
깃	교령	교령	대금령	입령	입령 원령	입령
여밈	우대금	대금	우대금	우대금	우대금	우대금
소매	대수 통수	통수	대수 통수	착수	마제수 전수 착수	착수 무수
색채	흑색 적색 황색 녹색 백색	청색 홍색 흑색 백색 황색	녹색 황토색 분홍색 황색 흑색 자주색 백색	자색 적색 녹색 남색 연분홍 자녹색	황색 황토색 짙은 남색 청색 연분홍색 홍색	백색 담황색 짙은 남색

청대의 여성 통수 기장이며, 깃은 반령이고 통수, 길이는 긴 것, 짧은 것도 있지만 보통은 발목에 이르는 정도이며, 앞길은 겉과 안의 두 자락이 겹쳐지고 안쪽은 끈으로 바깥쪽은 매듭 단추로 여몄다. 이 그림에서는 앞자락이 열려 있으나, 일반적으로 앞이 닫힌 것이 많았고, 특히 여성의 기포는 옆트임이 있고 앞은 보통 막혀 있었다. <그림 10>은 청대의 여성 전수 기장이며, <그림 11>은 청대의 황실 여성 마제수 기장이다. 청나라의 포복은 넓고 길이가 발목까지 길었으며 신해혁명을 거치며 서양식 입체 재단의 영향을 받아 이전의 화려하고 복잡한 형태에서 간결한 디자인과 우아한 색깔로 변하였다. 청대 여자들의 포복은 색상으로 지위와 신분을 나타냈고 청나라 황후와 비는 예복의 색상을 계급의 높고 낮음에 따라 밝은 황색, 황금색, 다갈색, 남색 및 남동색등의 색상으로 구분되었다(楊素瑞, 2014). 일반 부녀자들은 짙은 남색과 청색, 연분홍색과 홍색의 포복스타일을 주로 착용하였다.

중화민국시대인 1910년대 말과 1920년대 초기는 오사 신문화 운동(五 四新文化运动)의 영향으로 치파오가 유행하게 되었다. 남자들의 포복은 장포, 여자의 포복은 치파오로 통칭하였다. 이때부터 색상으로서 포복의 형식을 구분하는 것은 사라졌다. 여자의 치파오는 백색과 담황색, 짙은 남색 등의 소박하고 우아한 색상이 주가 되었다(郭媛媛, 2014). 실루엣은 박스형을 유지했으며 이전 포복보다 소매는 길이는 짧아졌으나 폭은 넓게 변하였다. 길이가 종아리까지 오는 긴 조끼가 많은 선호를 받았는데, 치파오가 유행되기 전까지 이러한 치파오 조끼를 저고리 곁에 입음으로써 치마와 바지를 대체했다(华梅, 2018). <그림 12>는 1920년대 치파오이다. 원령과 입령의 넥라인, 대금, 좁은 소매, 허리를 두르는 띠가 있는 것과 없는 것, 상하가 연결 구조로 재단되어 매듭으로 양측을 트고 끝자락은 끈거나 동글게 재단되었다(Zou, 2014). 1930년대부터 치파오가 세계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1930, 40년대는 치파오가 세계적으로 중요한 자리를 잡고 중국 여성의 대표적인 복식이 되었고 치파오의 황금시대였다. 이 시기에 치파오는 길이가 길고 몸에 맞게 만들어져 체형을 날씬하게 보이도록 하는 장점이

있어서 대세가 되었다.

<표 1>은 선진시대부터 중화민국 시대에까지의 중국 전통 여성 포복의 시대별 디자인 특징을 정리한 것이다.

Ⅲ. 연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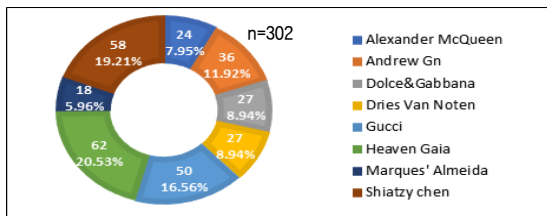
1. 연구 대상과 범위

본 연구의 방법은 차이나이즈 포복스타일의 디자인 분석항목 마련을 위한 문헌연구와 차이나이즈 포복스타일 작품 사례의 내용분석으로 이루어졌다. 문헌연구는 국내외 해외의 관련 문헌과 선행 연구 등을 활용하였고, 내용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2014년 S/S부터 2018년 F/W까지 파리과 베이징 컬렉션에 나타난 차이나이즈 여성 포복스타일을 대상으로 하였다. 사례 수집은 Vogue.com과 chinafashionweek.org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파리컬렉션과 베이징 컬렉션에서 차이나이즈 포복스타일에서 영감을 얻은 출현사례 수에서 상위를 차지하는 디자이너 각 8명의 작품을 수집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파리컬렉션에서는 Andrew Gn, Gucci, Dries Van Noten, Alexander McQueen, Dolce & Gabbana, Heaven Gaia, Marques' Almeida, Shiatzy Chen 등이 선정되었고, 베이징 컬렉션에서는 Heaven Gaia, Fengfei Z, Ne Tiger, Chantel Gong, Eve de Cina, Mukzin, Celestial Spring, Chan Zi 가 선정되었다. Heaven Gaia의 경우는 두 컬렉션 모두에서 등장한 브랜드로 본 연구에서는 두 컬렉션에서 등장한 이름 그대로 Heaven Gaia, HEAVEN GAIA로 구분 분석을 진행하였다. 수집한 사례 수는 파리컬렉션 302장, 베이징컬렉션에서 337장, 총 639장의 차이나이즈 포복스타일 사례들이 수집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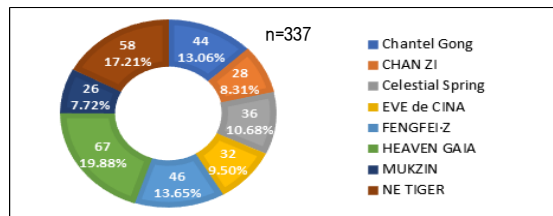
분석의 객관성과 보편적 타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의상학 전공자 5인으로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였으며 분석 자료가 되는 작품들은 앞의 이론 연구에서 정리된 차이나이즈 포복스타일 표현 특징이 포함되고 전문가 집단 5인 모두가 동의한 것으로 선정하였다.

〈표 2〉 차이나이즈 포복스타일 패션 디자인 분석항목

내용		항목							
시대	선진시대	진한시대	송대	명대	청대	중화민국			
형태	실루엣	A형		H형		X형			
	네크라인 칼라	교령	원령	입령	대금령	기타			
	슬리브	착수	대수	통수	무수	기타			
색상	청색	자색	적색	황색	녹색	백색	흑색	혼합색	
문양	동물문		식물문		기타복합문		기타		



〈그림 13〉 파리컬렉션 디자이너별 차이나이즈 포복스타일 총 출현빈도



〈그림 14〉 베이징컬렉션 디자이너별 차이나이즈 포복스타일 총 출현빈도

2. 분석 항목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하여 포복스타일 패션의 구성요소를 형태(실루엣, 네크라인, 소매), 색계열, 소재(문양)를 중심으로 분석항목을 설정하였다. 시대별 분류에서는 여성 포복스타일이 나타나지 않은 위진 남북조, 당대를 제외하고 선진시대, 진한시대, 명대, 송대, 청대, 중화민국시대로 분류하였다. 차이나이즈 포복스타일의 실루엣으로는 선진시대의 곡거 심의, 진한시대의 곡령포, 청대의 기장의 형태가 해당하는 A형 실루엣, 송대의 배자, 명대의 수전의가 해당하는 H형 실루엣, 그리고 청대의 치파오가 X형 실루엣으로 분류되었다. 네크라인과 칼라는 교령(symmetric front-end), 원령(round neckline), 입령(stand collar), 대금령(straight front-end), 기타로, 소매는 착수(narrow sleeve), 대수(wide sleeve), 통수(tube sleeve), 무수(sleeveless), 기타로 분류되었다. 색채는 선행연구의 중국 시대별 포복의 색채 특징에서 도출된 색을 근거로 청색, 자색, 녹색, 붉은색, 황색의 5가지 유채색과 백색, 흑색의 무채색으로 정리하였으며 사례분석에서 두 가지 이상의 뚜렷한 색이 혼합된 경우는 혼합색으로 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문양도 선행이론을 근거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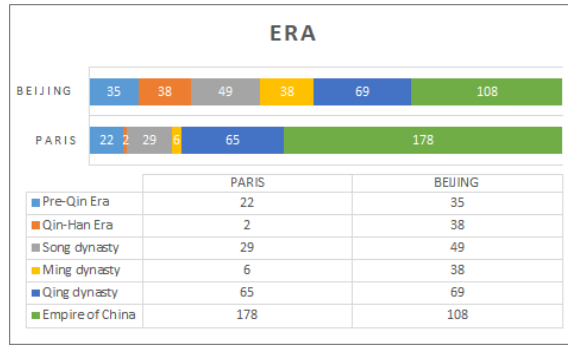
동물문, 식물문, 기타복합문으로 분류하고 중국 전통문양 외의 문양이 사용된 경우는 기타로 정하였다. 차이나이즈 포복스타일 분석항목은 〈표 2〉와 같이 정리되었다.

VI. 2014년 S/S부터 2018년F/W 까지 파리와 베이징컬렉션의 차이나이즈 포복스타일 사례 비교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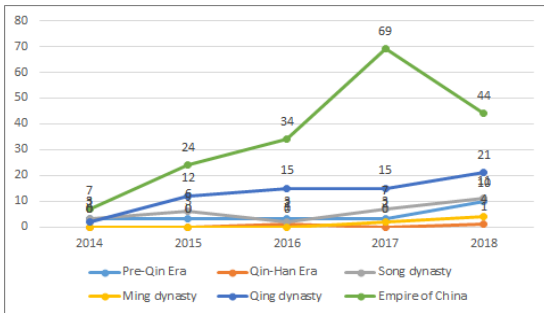
1. 차이나이즈 포복스타일 활용 디자이너

2014년S/S부터 2018년F/W까지 파리컬렉션과 베이징컬렉션에 나타난 차이나이즈 포복스타일의 디자이너 출현 분포도는 〈그림 13〉, 〈그림 1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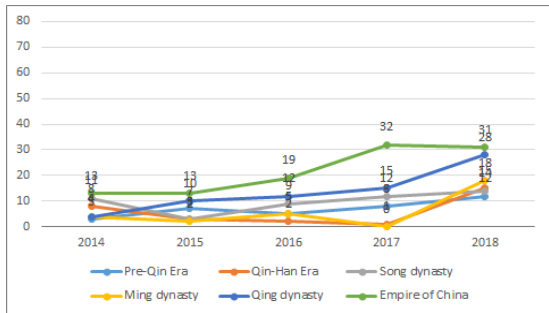
먼저 파리컬렉션의 경우 사례 총 302장중에 Heaven Gaia의 차이나이즈 포복스타일 사례가 총 62장(20.53%)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Shiatzy Chen은 58장(19.21%), Gucci 50장(16.56%), Andrew Gn 36장(11.92%), Dries Van Noten은 27장(8.94%), Dolce & Gabbana 27장(8.94%), Alexander McQueen



〈그림 15〉 파리와 베이징 컬렉션 시대별 차이나이즈 포복스타일 출현빈도 비교



〈그림 16〉 paris컬렉션 시대별 차이나이즈 포복스타일 변화추이



〈그림 17〉 베이징컬렉션 시대별 차이나이즈 포복스타일 변화추이

24장(7.95%), Marques' Almeida 18장 (5.96%)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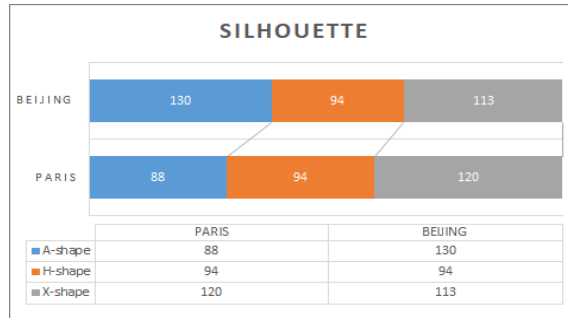
베이징컬렉션 경우는 총 337장 중 HEAVEN GAIA가 67장(19.88%)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NE TIGER는 58장(17.21%), FENGFEI·Z 46장 (13.65%), Chantel Gong은 44장(13.05%), Celestial Spring은 36장(10.68%), EVE de CINA는 32장 (9.50%), CHAN ZI는 28장(8.31%), MUKZIN은 26 장(7.72%) 순으로 나타났다.

2. 시대별 차이나이즈 포복스타일 출현 비교

〈그림 15〉 파리와 베이징 컬렉션 시대별 차이나이즈 포복스타일 출현빈도 비교분석 결과 파리컬렉션 경우 중화민국시대가 178장(58.94%)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청대 65장 (21.52%), 송대 29장 (9.60%), 선진시대 22장(7.28%), 명대 6장(1.99%), 진한시대는 2장(0.66%) 순으로 나타났다. 베이징 컬렉션 경우는 중화민국시대 108장(32.05%)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청대 69장(20.47%), 송대 49

장(14.54%), 진한시대 38장(11.28%), 명대 38장 (11.28%), 선진시대 35장(10.39%) 순으로 나타났다. 두 컬렉션 모두 중화민국시대의 포복스타일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나 파리컬렉션의 경우는 과반이상인 중화민국 시대의 스타일로 나타났다. 베이징컬렉션의 경우 중화민국시대가 가장 많으나, 나머지 시대들의 포복 스타일이 다채롭게 등장한 반면 파리컬렉션의 경우는 진한시대와 명조의 스타일이 매우 희소하게 등장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그림 16〉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파리컬렉션 시대별 차이나이즈 포복 스타일의 변화 추이이며, 〈그림 17〉은 베이징컬렉션 시대별 차이나이즈 포복스타일의 변화추이이다. 두 컬렉션 모두 시년별 기록은 있으나 선진, 진한, 송, 명, 청, 중화민국시대 모두 2014년에 비해 2018년에 증가하였다. 특히 중화민국시대와 청대가 초반에 비해 많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를 통해 파리컬렉션에서도 중국 문화를 활용하고 중국적인 요소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었고



〈그림 18〉 파리와 베이징 컬렉션 차이나이즈 포복스타일 실루엣 유형 비교

〈표 3〉 파리컬렉션과 베이징컬렉션 출현 차이나이즈 포복스타일 실루엣 사례 비교

파리컬렉션			베이징 컬렉션		
〈그림 19〉 Dolce & Gabbana. 2016 S/S (출처: http://www.vogue.com)	〈그림 20〉 Gucci. 2018 S/S (출처: http://www.vogue.com)	〈그림 21〉 Marques' Almeida. 2014 S/S (출처: http://www.vogue.com)	〈그림 22〉 EVE de CINA. 2017 S/S (출처: http://www.chinafashionweek.org)	〈그림 23〉 CHAN ZI. 2018 F/W (출처: http://www.chinafashionweek.org)	〈그림 24〉 Chantel Gong. 2016 S/S (출처: http://www.chinafashionweek.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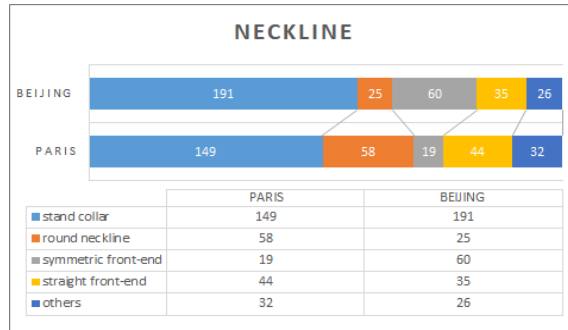
베이징 컬렉션 경우 각 시대의 포복스타일의 활용이 고르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그 중 2018년 F/W, 청대, 진한시대와 명대의 포복스타일 활용도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결과적으로 2014년에 비해 2018년 파리컬렉션과 베이징컬렉션 모두 차이나이즈 포복스타일 활용이 증가했다는 공통점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베이징컬렉션에서는 다양한 시대의 차이나이즈 포복스타일 디자인이 활용되는 반면 파리컬렉션에서는 중화민국시대에 집중되어 있는 분포를 확인할 수 있었다.

3. 차이나이즈 포복스타일 디자인 구성요소 활용

1) 실루엣

〈그림 18〉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파리와 베이징 컬렉션 차이나이즈 포복 스타일의 실루엣 분석 결과이다.

파리컬렉션 경우 X형 실루엣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으며 이어서 H형, A형 순으로 나타났다. 베이징 컬렉션 경우는 A형 실루엣이 가장 많았으며, X형, H형 순서로 나타났다. 파리컬렉션에서 X형 실루엣의 출현 대세는 시대별 포복스타일 출현빈도의 과반을 넘게 차지했던 중화민국시대의 치파오 포복스타일의 출현빈도와 일치하는 대목이다. 치파오는 신체를 드러나게 하여 여성인체를 날씬하게 보인다는 점에서 선



〈그림 25〉 파리와 베이징 컬렉션 차이나이즈 포복스타일 칼라 유형 출현빈도 비교

〈표 4〉 파리컬렉션과 베이징컬렉션 출현 차이나이즈 포복스타일 네크라인 유형 사례 비교

파리컬렉션		베이징 컬렉션	
			
<p>〈그림 26〉 Alexander McQueen, 2015 S/S (출처:http://www.vogue.com)</p>	<p>〈그림 27〉 Andrew Gn, 2018 S/S (출처:http://www.vogue.com)</p>	<p>〈그림 28〉 Chantel Gong, 2016 S/S (출처:http://www.chinafashionweek.org)</p>	<p>〈그림 29〉 FENGFEI · Z., 2018 F/W (출처:http://www.chinafashionweek.org)</p>

호되는 디자인으로 유럽디자이너들에게도 치파오는 중국의 대표이미지로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반면 베이징컬렉션에서는 다양한 시대 별 포복스타일이 영감으로 활용되고 특히 청대와 송대 포복스타일이 영감으로 비중 있게 사용되면서 A형 실루엣이 많이 등장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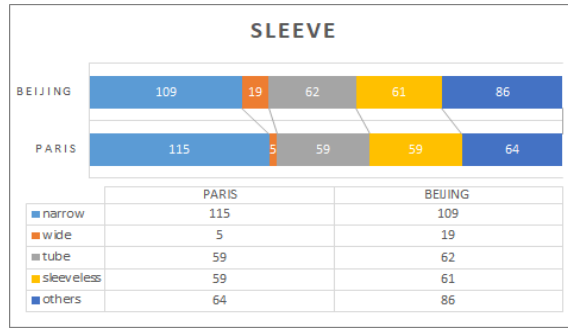
〈그림 19〉과 〈그림 20〉은 파리 컬렉션에 나타난 X형 실루엣의 중화민국시대 치파오 영향을 받은 디자인들이다. 〈그림 19〉는 Dolce & Gabbana의 2016년 S/S 작품이며 X형 실루엣의 치파오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디자인이다. 〈그림 20〉은 2018 S/S GUCCI의 작품으로 치파오에서 영감을 얻어 투피스로 디자인된 X형 실루엣이다. 이처럼 파리컬렉션에서는 치파오의 실루엣과 디테일을 디자인에 활용된 것

이 많이 나타났다. 〈그림 21〉은 파리컬렉션에서 두 번째로 많이 등장한 H형 실루엣으로 Marques' Almeida 2014 S/S 작품이다.

〈그림 22〉와 〈그림 23〉은 베이징 컬렉션에 나타난 A형 실루엣의 차이나이즈 포복스타일이다. 〈그림 22〉는 EVE de CINA의 2018년 F/W작품이며, 청대 기장에서 영감을 얻은 A형 실루엣의 차이나이즈 포복스타일 디자인이다. 〈그림 23〉은 CHAN ZI의 2018년 F/W 작품으로 선진시대 포복스타일을 활용한 A형 실루엣이다. 〈그림 24〉는 베이징 컬렉션에서 두 번째로 많이 나타난 X형 실루엣으로 Chantel Gong의 2016 S/S 작품이다.

(2) 네크라인과 슬리브

〈그림 25〉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파리과



〈그림 30〉 파리와 베이징 컬렉션 차이나이즈 포복스타일 슬리브 유형 출현빈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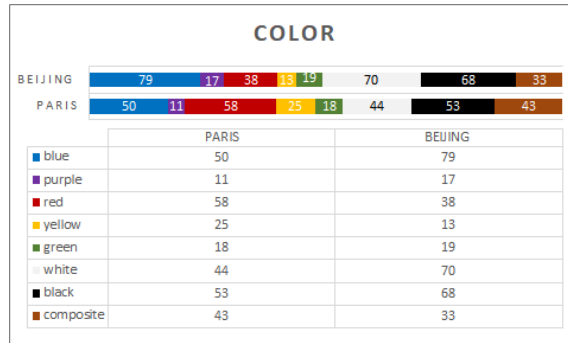
〈표 5〉 파리컬렉션과 베이징컬렉션 출현 차이나이즈 포복스타일 슬리브 유형 사례 비교

파리컬렉션		베이징 컬렉션	
			
〈그림 31〉 Dries Van Noten, 2015 F/W (출처: http://www.vogue.com)	〈그림 32〉 Alexander McQueen, 2015 S/S (출처: http://www.vogue.com)	〈그림 33〉 Celestial Spring, 2017 F/W (출처: http://www.chinafashionweek.org)	〈그림 34〉 NE TIGER, 2015 S/S (출처: http://www.chinafashionweek.org)

베이징 컬렉션 차이나이즈 포복 스타일의 칼라유형 분석 결과이다. 파리컬렉션 경우 입령(stand collar)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났으며 원령(round neckline), 대금령(straight front-end), 기타, 교령(symmetrical front-end), 순으로 나타났다. 베이징 컬렉션 경우에도 입령(stand collar)이 가장 많이 나타났고 교령(symmetrical front-end), 대금령(straight front-end), 기타, 원령(round neckline)순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점은 파리컬렉션 경우에서 두 번째 출현빈도를 보인 원령(round neckline)이 베이징컬렉션에서는 가장 적은 비중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며, 베이징 컬렉션에서 두 번째 출현빈도를 보인 교령(symmetrical front-end)이 파리컬렉션에서는 가장 적게 출현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서양 패션에서는 중국풍이 조합되면서 익숙한 라운드 네크라인을 접목한 것으로

보이며, 중국패션에서는 서양 패션과는 차별화되는 중국풍의 대표적 이미지 중 하나로 교령(symmetrical front-end)을 선택한 것으로 추측된다.

〈그림 26〉은 파리 컬렉션에서 네크라인 디자인으로 가장 많이 나타난 원령을 도입한 디자인 사례로 2015년 S/S Alexander McQueen의 작품이다. 명, 청시대의 입령을 활용한 포복스타일이다. 〈그림 27〉은 파리 컬렉션의 Andrew Gn의 2018년 S/S에 작품으로 입체적 자수 장식을 활용한 중국 송대 배자와 원령을 활용한 차이나이즈 포복스타일 디자인이다. 〈그림 28〉은 베이징컬렉션에서도 가장 많이 나타난 네크라인인 입령 사례로 Chantel Gong의 2016년 S/S 작품이다. 〈그림 29〉는 베이징컬렉션에서 두 번째로 많이 나타난 교령으로



〈그림 35〉 파리와 베이징 컬렉션 차이니즈 포복스타일 색계열 출현빈도 비교

〈표 6〉 파리컬렉션과 베이징컬렉션 출현 차이니즈 포복스타일 색계열 사례 비교

파리컬렉션			베이징 컬렉션		
					
〈그림 36〉 GUCCI. 2017 S/S (출처: http://www.vogue.com)	〈그림 37〉 Shiatzy Chen. 2018 F/W (출처: http://www.vogue.com)	〈그림 38〉 Marques' Almeida. 2015 S/S (출처: http://www.vogue.com)	〈그림 39〉 EVE de CINA. 2015 F/W (출처: http://www.chinafashionweek.org)	〈그림 40〉 FENGFEI · Z. 2014 S/S (출처: http://www.chinafashionweek.org)	〈그림 41〉 HEAVEN GAIA. 2017 F/W (출처: http://www.chinafashionweek.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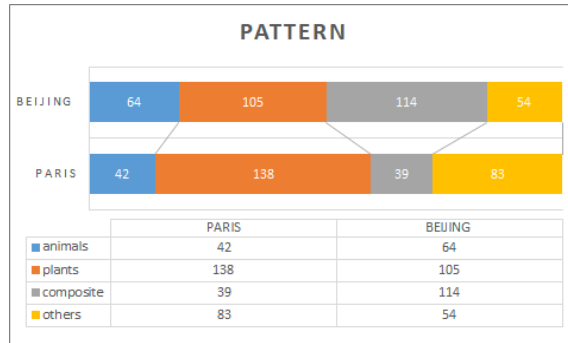
2018년 F/W FENGFEI · Z의 작품이다. 선진시대의 교령을 활용하였다.

〈그림 30〉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파리과 베이징 컬렉션 차이니즈 포복 스타일의 슬리브 유형 분석 결과이다. 파리컬렉션 경우 착수(narrow sleeve)가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기타, 통수(tube sleeve)와 무수(sleeveless), 그리고 대수(wide sleeve)의 순으로 나타났다. 베이징 컬렉션 경우에도 착수(narrow sleeve)가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기타, 통수(tube sleeve), 무수(sleeveless), 그리고 대수(wide sleeve)의 순으로 파리컬렉션과 비슷한 순위로 나타났다. 다만 파리컬렉션에는 매우 적은 수로 나타난 대수(wide sleeve)가 베이징컬렉션에서는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났다.

〈그림 31〉은 파리컬렉션 Dries Van Noten의 2015년 F/W에 작품으로 착수 소매유형 사례이다. 〈그림 32〉는 2015년 S/S Alexander McQueen 작품으로 청대 포복스타일 통수를 적용한 디자인을 보여주었다. 〈그림 33〉은 베이징 컬렉션 Celestial Spring의 2017년F/W에 작품이며 통수 슬리브 유형이다. 〈그림 34〉는 NE TIGER의 2015년 S/S 작품으로 송대의 대수의 소매스타일을 활용한 포복스타일이다.

3) 색계열

〈그림 35〉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파리과 베이징 컬렉션 차이니즈 포복 스타일의 색 유형



〈그림 42〉 파리컬렉션 시대별 차이나이즈 포복스타일 문양 변화추이

〈표 7〉 파리컬렉션과 베이징컬렉션 출현 차이나이즈 포복스타일 문양 사례 비교

파리컬렉션			베이징 컬렉션		
					
〈그림 43〉 Marques' Almeida. 2018 S/S (출처:http://www.vogue.com)	〈그림 44〉 Dolce & Gabbana. 2018 F/W (출처:http://www.vogue.com)	〈그림 45〉 Alexander McQueen. 2015 S/S (출처:http://www.vogue.com)	〈그림 46〉 EVE de CINA. 2016 S/S (출처:http://www.chinafashionweek.org)	〈그림 47〉 NE TIGER. 2015 S/S (출처:http://www.chinafashionweek.org)	〈그림 48〉 NE TIGER. 2018 F/W (출처:http://www.chinafashionweek.org)

분석 결과이다. 파리컬렉션 경우 적색(red)계열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흑색(black)계열, 청색(blue)계열의 순서로 나타났다. 베이징 컬렉션 경우에는 청색(blue)계열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백색(white)계열, 흑색(black)계열이 비슷한 출현빈도를 나타냈다. 두 컬렉션의 비교에서 특징적인 것은 파리컬렉션에서 적색(red)계열이 가장 많이 출현빈도를 보인 것에 비해 베이징 컬렉션 경우 현저히 적은 수치로 등장하였다는 점이다.

〈그림 36〉, 〈그림 37〉은 파리컬렉션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적색 계열의 차이나이즈 포복스타일이다. 〈그림 36〉은 2017년 S/S GUCCI의 작품으로 중화민국시대 포복스타일 입령을 활용한 적색계

열의 드레스이다. 〈그림 37〉은 Shiatzy Chen의 2018년 F/W에 작품으로 명대의 포복스타일인 입령과 A라인 실루엣이 적용된 역시 적색(red)계열의 디자인이다. 〈그림 38〉은 파리컬렉션에서 두 번째로 많이 나타난 흑색계열의 미니드레스로 Marques' Almeida의 2015년 S/S 중화민국시대 차이나이즈 포복스타일을 활용한 것이다. 〈그림 39〉, 〈그림 40〉, 〈그림 41〉은 베이징 컬렉션에 많이 나타난 순서인 청색, 백색, 흑색계열의 디자인들이다. 〈그림 39〉는 2015년 F/W EVE de CINA의 작품으로 명대의 포복스타일에서 영감을 받은 청색계열의 차이나이즈 포복 스타일이다. 〈그림 40〉은 FENGFEI·Z의 2014년S/S에 작품으로 백색계열의 중화민국시대의 치파오 차이나이즈 포복스타일이다.

〈표 8〉 파리와 베이징컬렉션이 차이나이즈 포복스타일사례 디자인 구성요소 비교

	파리컬렉션	베이징컬렉션
시대적 총 출현빈도	중화민국시대	중화민국 포복스타일 중심으로 다른 시대도 다양하게 출현
실루엣	X형> H형>A형	A형> H형>X형
네크라인	입령> 원령	입령> 교령
슬리브	착수	착수
색개열	적색>흑색	청색>백색
문양	식물문양	기타복합문양

〈그림 41〉은 2017년 F/W HEAVEN GAIA의 작품이며 흑색계열의 교령, 선진시대의 우대금과 대수를 활용한 포복스타일 디자인을 표현하고 있다.

(4) 문양

〈그림 42〉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파리와 베이징 컬렉션 차이나이즈 포복 스타일의 문양 유형 분석 결과이다.

파리컬렉션 경우 식물문양 (plant pattern)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그 다음 기타 문양이 많았다. 베이징 컬렉션 경우에는 전통적인 기타 복합문양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식물문양으로 나타났다.

〈그림 43〉, 〈그림 44〉는 파리 컬렉션에 나타난 식물문양의 사례로 〈그림 43〉은 파리 컬렉션 2018년 S/S Marques' Almeida의 작품이다. 식물문양을 도입한 치파오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디자인이다. 〈그림 44〉는 Dolce & Gabbana의 2018년 F/W 작품으로 송대 대금령의 배자를 활용한 차이나이즈 포복스타일로 모란꽃을 문양화한 자수기법의 디자인이다. 〈그림 45〉는 2016년 F/W Alexander McQueen의 작품으로 중국풍의 식물도안과 기타 복합문양의 이미지를 도입한 중국 포복스타일 디자인이다. 베이징컬렉션에 가장 많이 나타난 기타복합문양은 물 또는 불을 동물이나 식물의 문양과 복합하여 문양화한 것이다. 〈그림 46〉은 EVE de CINA의 2016년 S/S 작품이며 용 문양과 기타복합 문양인 물결문을 조합하여 은박 프린트로 나타난 디자인을 보여주었다. 〈그림 47〉도 기타복합문양을 도입한 것으로 2015년 S/S NE TIGER의 작품이다. 구름과 모란, 불과 물결을 복합적으로 문양화 한 드레스 디자인이다. 〈그림 48〉은 베이징 컬렉션에서 두 번째로 많이 나타난

식물문양으로, 2018년 F/W 컬렉션에서 NE TIGER는 식물문양이 드레스 전면에 놓여진, 치파오에서 영감을 얻은 차이나이즈 포복스타일의 디자인이다.

3) 파리와 베이징 컬렉션의 차이나이즈 포복스타일 디자인 분석결과 비교 논의

〈표 8〉은 파리컬렉션과 베이징컬렉션 출현사례들의 차이나이즈 포복스타일 디자인 구성요소 비교 분석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첫째, 중국의 오랜 역사만큼 다양한 포복스타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리컬렉션에서는 중화민국시대의 치파오 스타일이 대세를 이루고 있었다. 이는 치파오가 여성스러운 인체의 아름다움을 잘 표현할 수 있고 서양인들이 보는 동양의 이국적인 이미지가 내포되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 베이징컬렉션에서는 치파오 스타일이 여전히 차지하는 비중이 크나, 선진, 진한, 송, 명, 청대의 포복스타일이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었다. 추측하자면, 자국에서 디자인 영감을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의 경험이 많았던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현재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중국의 디자이너가 많아지고 있는 만큼 중화민국시대 외의 포복스타일의 현대디자인 활용은 더 많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파리컬렉션에서의 차이나이즈 포복스타일은 X형 실루엣이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결과 역시 중화민국 시대의 치파오가 디자인 영감으로 많이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베이징컬렉션에서도 같은 이유로 다양한 시대의 포복스타일 디자인의 활용으로 인한 A형 실루엣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셋째, 네크라인 디자인에서는 두 컬렉션 모두 입령이 가장 많이 나타났는데 입령

은 '마오칼라(Mao collar)', '차이나이즈 칼라(Chinese collar)'의 이름으로 서양 패션에서 공식적인 디자인 디테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로 보인다. 슬리브는 착수가 두 컬렉션에서 대세로 나타났는데, 착수는 현대패션의 셋인(set-in) 슬리브의 유형과 거의 동일한 것으로 입령의 최다 출현빈도와 마찬가지로의 이유로 보인다. 넷째, 색 계열의 사용은 파리컬렉션에서는 적색계열이, 베이징컬렉션에서는 청색계열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파리컬렉션의 경우 1949년 전쟁 후에 중국의 대표적인 색으로 적색이 부상되어 이 때문에 서양에서는 중국의 대표적인 색으로 적색을 연상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반면, 베이징 컬렉션 디자이너들은 붉은색보다 청색과 백색을 많이 활용했는데 중국 포복 역사를 바탕으로 볼 때 남색, 짙은 남색, 청색의 언급이 많고, 선진시대, 진한시대 등 1949년 이전 중국의 대표색이 백색이었던 것과 관련되어 차이나이즈포복스타일에 반영된 것으로 사료된다. 다섯째, 문양의 경우는 파리컬렉션에서는 식물문양이 많이 나타났고, 베이징컬렉션에서는 기타 복합문양이 많이 나타난 것이 특징적이었다. 파리컬렉션의 경우는 전통적 자수기법으로 중국풍을 표현하였으며 베이징컬렉션에서는 사실적인 식물 동물문양과 함께 기타복합문양을 조합하였다.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중국 전통 포복의 시대적 형태 특징들이 파리와 베이징컬렉션의 중국풍 디자인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비교 분석하여 유럽과 중국 디자이너의 포복스타일 표현방법차이를 알아보았다. 연구의 방법은 문헌연구와 사례의 내용분석으로 이루어졌다. 차이나이즈 포복스타일의 시대별 구분은 선진시대, 진한시대, 송대, 명대, 청대, 중화민국시대로 구분되었고, 디자인 구성요소로 실루엣, 네크라인, 슬리브, 색계열, 문양으로 설정하였다. 파리와 베이징컬렉션에 나타난 차이나이즈 포복스타일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차이나이즈 포복스타일을 많이 활용한 대표 디자이너는 파리컬렉션에서는 Alexander McQueen, Andrew Gn, Dolce & Gabbana, Dries Van Noten,

Gucci, Heaven Gaia, Marques' Almeida, Shiatzy Chen으로 나타났고, 베이징컬렉션에서는 HEAVEN GAIA, FENGFEI · Z, NE TIGER, Chantel Gong, EVE de CINA, MUKZIN, Celestial Spring, CHAN ZI로 나타났다. 둘째, 파리컬렉션과 베이징컬렉션 모두 차이나이즈 포복스타일의 활용이 해마다 증가했다는 공통점을 볼 수 있었다. 특징적인 점은 파리컬렉션은 과거 중화민국시대 포복스타일의 치파오를 활용한 디자인이 대부분이었고, 반면, 베이징컬렉션은 중화민국시대 포복스타일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파리컬렉션에 비해 선진, 진한, 송, 명, 청대의 포복스타일이 고르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셋째, 파리와 베이징컬렉션의 차이나이즈 포복스타일 디자인 구성요소 비교 분석 결과, 형태에서는 각각 X라인과 A라인의 실루엣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차이를 보였고, 네크라인과 슬리브에서는 입령과 착수가 공통적으로 많이 나타났다. 색 계열은 파리의 경우 적색, 베이징은 청색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차이를 보였고, 문양에서도 각각 매화, 국화, 모란, 대나무와 같은 식물문양과 물결, 구름, 고대 자화 문양, 산수문양, 고대 건축문양과 같은 기타복합 문양이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결론적으로 최근 5년간의 파리컬렉션과 베이징컬렉션의 차이나이즈 포복스타일을 비교하자면, 파리컬렉션은 여러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경향으로 인해 여러 시대의 중국 포복스타일의 요소들이 다양한 스타일로 융합되어 디자인이 구현되었고, 베이징컬렉션은 역사성과 민족성을 강조한 디자인을 진행해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차이나이즈 포복스타일을 활용한 패션 디자인의 활용 방향 모색과 새로운 중국풍 디자인 창출, 차이나이즈 포복스타일의 특징적 요소를 응용한 패션 연구의 학술적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다채롭고 새로운 방식의 차이나이즈 포복스타일로 현대패션의 실질적인 디자인 개발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 교단. (2012). *중국풍 패션디자인의 조형적 특성*.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연. (2012). *현대 남성 재킷에 나타난 중국풍 디자인 특성*.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영, 김선아. (2009). 중국풍 에스닉 패션의 색채 특성. *한국디자인포럼*, 24(24), 41-51.
- 서아정, 오희경, 김숙진. (2013). 중국 민국시대 (1912년-1949년)에 나타난 치파오 문양에 관한 연구.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15(3), 69-83.
- 성향숙. (2001). *현대 패션에 나타난 오리엔탈리즘에 관한 연구. 1990년대 패션에 나타난 중국 문양을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상철. (2011). 미술 시장과 새로운 취향의 형성 관계: 18세기 로코코 미술에 나타난 쉬노와즈리(Chinoiserie) 양식. *미술사학*, 25, 155-180.
- 이홍연. (2018). *전지 기법을 활용한 현대 치파오 패션디자인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이, 김숙진. (2011). 중국 소수민족의 의상을 재해석한 패션디자인 연구.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13(2), 175-183.
- 주가이, 하승연. (2016). 현대 여성복에 나타난 중국풍 특성.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18(3), 21-36.
- J. Dawn.(1993). *Chinoiserie*. London: Phaidon Press Ltd.
- 陈霞. (2015). *当代中国风格服饰探究*. 西安美术学院 博士學位論文.
- 湖北省荆州地区博物馆.(1985). *江陵马山一号楚墓*. 北京:文物出版社.
- 华梅(2018). *中国服饰史*. 北京:中国纺织出版社.
- 江苏省扬州市双博馆.(1999). *明代服饰*. 中国:双博馆展览资料.
- 郭媛媛. (2014). *民国时期上海地区旗袍设计研究*. 淮北师范大学 硕士學位論文.
- 马唯, 吕钦. (2018). 满族服饰在现代服装设计中继承与发展的文化特征. *明日风尚*, (4), 100.
- 毋海娟. (2012). *中国风元素在高级时装中的应用与反思*. 北京服装学院 硕士學位論文.
- 福州福建博物馆.(1982). *南宋黄升墓 报告书*. 北京:文物出版社.
- 杨素瑞. (2014). 清代宫廷服饰色彩考析. *丝绸*, 51(5), 69-73.
- 吴爱琴. (2015). 先秦时期服饰色彩观念探析. *华夏考古*, 3, 63-71.
- 祖倚丹.(2006). 中国古代袍服构型特征及其发展演变. *河北科技大学*, 6(12).
- 赵波, 崔荣荣. (2013). 中国袍服演变研究. *服饰导刊*, 2, 70-73.
- 赵波. (2013). *我国袍服演变研究*. 江南大学 硕士學位論文.
- 赵波. (2015). 宋元袍服研究. *服饰导刊*, 27-35.